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업보

서 민
단국대 의대 교수

순항하는 듯했던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봉착했다. 임명하는 장관마다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으니 말이다. 위장 전입은 기본이고 논문 표절에 음주 운전까지, 낙마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때 내건 소위 5대 비리 관련자는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심지어 법무장관에 지명됐던 안경환 후보자는 짝사랑하는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게 드러나 충격을 줬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일은 해야 하는데, 깨끗한 후보자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의 선택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당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그의 선택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지켜 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UN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는 분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개혁의 적임자로,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어서 빨리 임명해 달라"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된 조대엽은 그간 기업 측 입장만 대변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제대로 된 노사관계를 추진할 적임자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분들이 저지른 범죄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문제는 현 대통령의 야당 시절에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여기에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열 달이 지나도록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후임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데, 지명하는 총리마다 각종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었다. 사실 총리가 그다지 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흠결이 아니라면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 중앙일보 출신인 문창극의 경우엔 "일본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념을 지녔으니 대한민국 총리로 부적합하다 해도,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마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건 지나쳤다. 그는 대법관 퇴임 후 5개월간 16억의 수임료를 챙긴 게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의 명성과 직위를 고려했을 때 그 정도 수임료가 지나친 건 아니었다. 결국 총리로 임명된 이는 이완구였지만, 그 역시 병역 기피와 부동산 투기라는 흠결을 지닌 데다, 경남기업 회장인 성완종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사표를 낸 걸 보면, 깨끗한 공직자를 찾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깨끗한 공직자만 쓰겠다면서, 병역 면탈·논문 표절·위장 전입·부동산 투기·세금 탈루 등 소위 5대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인사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선 멋지게 들렸던 이 말이 결국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흠결 없는 공직자가 드물다는 것을 이해하고, 능력이 있다면 통과시켜 주는 등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협조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지금처럼 야당이 인사 문제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건 국민적 지지가 높다고 그냥 밀어붙일 일만은 아니다. 과거에 대해 대통령이 유감을 표하고, 향후 공직자 인선을 어떻게 할지 야당과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처럼 까다로운 임명 절차가 계속된다면, 아무도 공직을 맡지 않으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도 현실을 좀 돌아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모든 장관과 총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통령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뽑은, 국정 농단의 주범이다. 그랬던 정당이 장관의 위장 전입을 지적하는 건 일말의 양심조차 저버린 행위이며, 10%도 안 되는 정당 지지율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다. 정당이 정권을 잡으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나라를 더 잘 되게 만들자는 것일진대, 일 좀 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의 절규를 무작정 외면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네가 그랬으니 나도 똑같이 해 주겠다, 이런 '초딩'적인 마인드보다는 일단 일을 하게끔 도와주고 그 일의 잘잘못을 꼼꼼히 따지는 어른이 돼 주길 빈다. 자유한국당이 만년 야당만 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종교칼럼

옛 전남도청 농성장의 어머니들에게

장 헌 권
서정교회 담임목사

산이 되고 강이 되는 사무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모든 어머니께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지난 5월에 '촛불로 잇는 5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 슬로건으로 보냈지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 때 국립묘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어머니들 감동의 눈물 보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제가 오면 언제나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퇴진하라고 촛불 들고 함께 외치면서 사진도 찍었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합니다.

37년 전 5월27일 새벽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들이 시내로 쳐들어 왔을 때 어머니의 심장은 녹았지요.

올해 5월16일 어머니가 계신 임곡동을 방문해서 뵙게 됐지요. 지금은 귀가 잘 안 들리지만 신앙생활 하시면서 따스하게 맞이해주던 어머니입니다. 김종연 열사 어머니! 어머니는 모성으로 아들의 죽음 알아차린 것이지요. 아들 만나러 망월동 처음 간 날 어머니는 아들의 묘 앞에서 새끼 잃은 한 마리의 짐승 같았다는 것을 증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인지 비명인지 알 수 없을 울부짖음 멈추지 않았고 아들의 무덤을 움켜쥐고 땅바닥을 뒹굴었지요. 눈물 뒤범벅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포효는 하늘에 가 있는 종연이게도 닿을 만큼 온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박성용 열사 어머니! 어머니는 "왜 찔렀지? 왜 쏘았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망월동에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 서려온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는다." 노래가 아니라 절규라고 하셨지요.

목숨보다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 저들의 총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어머니께서 더욱 강해진 것을 압니다. 플래카드 몸에 두르고 눕기도 하고 경찰들은 어머니를 개처럼 끌고 경찰서에 밀어 넣었던 적도 있지요. 쫓아오는 경찰들 피하려다 들고 있던 아들의 사진을 놓쳐 박살이 난 사진틀 들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도 있지요.

안종필 열사 어머니! 어머니는 어디서나 예쁨을 받던 그에게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는 재미를 흠씬 느끼게 해주었다지요.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의 한가운데 서 있던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살과 피와 같았던 아니 그보다 더 귀했던 자식 잃은 어머니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진상규명이 희망임을 알았지요.

문재학 열사 어머니! 어머니는 재학이를 신묘역으로 이장하는 날 아들의 뼈를 고르는 어머니의 손이 한 없이 떨리고 흩어진 뼈를 쓰다듬어도 재학이는 없었다지요. 어머니는 유골을 가슴에 품고 목놓아 울었고 다시 돌아와 주지 않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목놓아 울었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생각이 됩니다. 오직 하나 죽은 아들만은 잊을 수 없다고, 너무 보고 싶어도 그리움은 아직도 너무나 힘이 들고 버겁다고만 하시는 어머니입니다.

이정연 열사 어머니! 어머니는 5월27일 새벽을 뚫고 아들을 가슴에 꼭꼭 담았다고 하셨지요. 절대로 지워질 수도 없는 아들의 얼굴 가슴에 아로 새기고 망월동을 내려왔지요. 아들을 앗아간 이들에 대한 분노를 삭이지 않고 그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투쟁의 의지를 굳힌 것이지요. 자식 잃은 가슴에 퍼부어지는 숱한 비수들로 지금 어머니의 가슴은 갈래갈래 찢겨 있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 잘 알고 있어요. 두 번 다시는 이 땅에서 당신처럼 어처구니없이 자식 잃고 눈물짓는 어머니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014년4월16일 또 어처구니없는 일로 어머니들은 통곡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월호 엄마들을 눈물로 껴안아 주셨지요. 오월 어머니들은 도청에서 잃은 아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고 싶은 것이지요.

하지만,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1980년 5월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로서 옛 전남도청을 단순한 건축 문화재로만 여기고 있는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5월의 흔적과 기억이 사라진 것을 아셨지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300일이 넘는 가운데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하여 농성장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회의가 있을 때 농성장에 가면 늘 자리를 지키는 어머니들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어머니들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든 어머니들이지만 목소리는 카랑카랑하며 정신은 살아있는 청대처럼 곧기만 하는 어머니들. 옛 전남도청이 사적지로 복원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잊을 수 없는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광주의 어머니들, 5월의 어머니들 씩씩하게 살아가시는 어머니들 사랑합니다. 건강하셔서 '오월에서 통일로' 금강산도 평양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도합니다. 물론 5월 아버지들의 처절한 투쟁과 부성애가 있음도 잊을 수 없습니다. 김동수·이강수·유동운·문용동·민병대 열사를 기억합니다. (글 내용은 죽음으로 쓴 5·18 민중항쟁증언록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2' 참고했음을 밝힌다)

기 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

장세레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겸
광주여성회 대표

올해는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한세대 동안 한국사회는 시민의 힘을 통해,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한발 한발 전진해 왔다. 그러나 2017년 한국사회는 '헬조선', '흙수저-금수저'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양극화됐고 여성에 대한 차별도 지속되고 있다.

과거보다 여성 지위가 높아지고 성평등이 이뤄졌다고 얘기하지만 작년 5월 17일 일어났던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일 가정 양립을 이야기 하지만 여전히 가사와 돌봄은 여성의 역할로 미뤄버린 채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취약한 현실 등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어야 한다. 그 후 이어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 같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일자리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1962만 7000명 중 비정규직은 32.8%인 644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이 54.9%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늘었고, 남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의 45.1%이다.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6.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어든 반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14만 8000명이 늘어나 41.1%(353만 8000명)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늘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시간제일자리 확산 정책으로 인해 시간제 일자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 해 사이에 25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남성 시간제 노동자는 같은 기간 1만 8000명(3.4%) 증가했는데, 여성 시간제 노동자가 전년 동월 대비 22만 8000명(19.7%)이나 증가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급속한 확산이 전체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했는데 늘어난 시간제 노동자 중 92.9%는 여성이었다는 말이고, 그렇게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임금 임시직이었다.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 성격차 보고서'는 한국의 성평등 순위를 144개국 중 116위로 기록하고 있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49만 4000원,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79만 5000원. 대한민국에서 내 한 몸 바스러지게 일해도 남성 정규직이 월급 100만원을 받으면 여성은 63만원 밖에 못 받는다. 더구나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정규직의 35.8%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정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여성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곧 여성 노동자의 시급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여성이 집중된 직종은 '그냥' 임금이 낮다. 심지어 국가가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대지만 예산이 정말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고 심지어 여성의 노동을 무급자원봉사로 취급할 만큼 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더구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단순히 아이들 용돈 벌이나 집안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수준을 넘어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서도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의 현실화, 비정규직 철폐다.

서구 선진국들이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 가능한 임금', 즉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결정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매년 인상률에 연연하기보다는 3~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상용직 정액급여 중위임금의 50%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40%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혁신해나가야 할 것이다.

흔히 직장생활과 가사·육아의 병행을 여성 노동자의 이중고라고 말한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여기에 더해 고용불안의 고통이 추가돼 있는 셈이다. 이것은 곧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무방비 상태나 모성보호 권리에 대한 포기로 이어진다.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비정규직 철폐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다.

社 說

국민의당 일자리·가뭄 추경에 협조해야

대지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다. 그토록 기다리는 단비는 올 기미가 없고 전국의 논밭이 메말라 가고 있다. 바짝 마른 논밭과 타들어 가는 농작물을 바라보는 농심(農心) 또한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 급기야 한 방울의 비라도 내려주길 간절히 빌며 전국 각지에서 기우제까지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의 애타는 마음이야 백번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게 어디 기우제로 해결될 일인가.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그 무엇보다도 가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농작물을 자식 같이 기른 농민들이 한숨짓는 현실, 이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마침 정부는 일자리 대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다. 광주·전남의 각 지자체가 예비비마저 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경을 통한 정부 지원은 그야말로 단비와도 같을 것이다. 농림부의 가뭄 대책비도 바닥난 터라 지자체가 가뭄 대책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추경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번 일자리 추경을 통해 광주·전남에 배정되는 예산은 4000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인사청문 정국의 여야 대치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추경안 심사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비난한다.

자유한국당의 국정 발목 잡기야 차치하더라도 문제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면서도 추경에 관해선 다른 야당이 사실상 거부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매한 태도를 계속한다면 국민의당은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도는 3주 내리 하락하면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한다지만 민심에 따라 사안별로 협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민의당은 민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도 당장 추경 통과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30% 할당' 이번엔 꼭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고용한 지역 인재는 모두 758명으로 이들 기관들이 이전한 후 채용한 전체 6158명의 12.3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 신규 채용 인원 3226명 가운데 291명을 지역 대학 및 고교 출신으로 채용했던 한전은 지난 2014년 7.0%에서 2015년 10.8%로 높아졌다가 다시 2016년 8.8%로 떨어졌다. 혁신도시 13개 기관 전체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지난 2014년 11.2%, 2015년 14.2%, 2016년11.4%로 일관된 원칙이 없이 들쭉날쭉한 형태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지역 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예컨대 빛가람혁신도시의 한국전력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10명 중 3명 이상은 전남 지역 출신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원래 "혁신도시 사업을 할 때부터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가 하나의 방침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호남 인재 채용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문 대통령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30% 이상 할당제는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역 인재들이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또한 할 수 있는 한 모든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암도진창

중국 무경십서(武經十書)의 하나인 병법서 '삼십육계'(三十六計)에는 '암도진창'(暗度陳倉)이라는 계책이 나온다. '몰래 진창으로 건너간다'는 뜻인데,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 항우와 싸우면서 사용했던 전략이다.

중원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다 항우에게 밀린 유방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왕(漢王)에 봉해진다. 군사 요충지인 관중(關中)을 떠나 한중(漢中)에 도착한 유방은 관중으로 통하는 잔도(棧道)를 불태워 없애 버린다. 험한 벼랑에 나무로 가설해 놓은 잔도를 스스로 태워 버림으로써 '관중을 넘볼 마음이 없다'는 뜻을 항우에게 보여 준 것이다.

하지만 한중에서 세력을 형성한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으로 삼아 동쪽을 정벌할 계획을 세운다. 한신은 군사를 시켜 불타 버린 잔도를 수리하는 척했고, 관중을 지키던 초나라 장수 장한(章邯)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군사들을 잔도로 집결시킨다. 장한이 잔도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이 대군을 이끈 한신은 잘 알려지지 않은 옛길로 우회, 진창을 점령하고 관중을 함락시킴으로써 중원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한다.

'정면으로 공격할 것처럼 속인 뒤, 방비가 허술해진 후방을 공격한다'는 의미가 담긴 이 계책은 지난 4월 말 주한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전격 배치한 데 격분한 중국이 들먹이면서 유명세를 탔다. 당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요한 순간에 사드가 중국의 배후를 찔렀다'는 제목의 사평에서 "북한 창군절이었던 지난 4월 25일 북한은 평온했지만 오히려 한·미 당국이 전격적인 사드 장비 배치로 중국의 배후를 칼로 찔렀다"고 비난했다. 기습적인 야간 사드 배치를 '암도진창'에 비유한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암도진창'이라는 말까지 꺼내며 사드 철회를 압박하고 있고,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욕설까지 해 대며 사드 조기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인 만큼 미봉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닐 터다. 정부의 정확한 정세 판단과 현명한 결단, 일치된 국론만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홍행기 사회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